

8K TV와 인공지능의 황홀한 만남



가전·IT 전시회 'CES 2020'에서 국내 기업들이 5G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가전, 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반 '리얼 8K' TV 신제품(왼쪽)을, 삼성전자는 차량용 '디지털 콕핏 2020'을 공개한다. 사진제공 | LG전자·삼성전자

5G 이용한 8K 무선 수신도 눈길
진화한 모빌리티 기술 큰 기대감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가전·IT 전시회 'CES 2020'의 키워드는 5G와 인공지능(AI)이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은 5G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TV와 가전, 모빌리티 제품 및 서비스를 대거 선보인다. 우선 TV에서 8K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게 됐다. 삼성전자가 2020년형 'QLED 8K'를 공개하고, LG전자는 '리얼

8K' TV 신제품을 공개한다. SK텔레콤은 삼성과 함께 개발한 세계 최초의 '5G-8K TV'를 공개한다. 5G로 8K급 초고화질 영상을 무선으로 직접 수신한다.

8K 경쟁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강화된 인공지능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QLED 8K 신제품에 화질을 업스케일링 해주는 AI 퀀텀 프로세서에 딥러닝 기술을 추가로 적용했다. LG전자도 8K TV 신제품에 더 강력한 AI 프로세서 '알파9 3세대'를 탑재했다.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화질과 사운드를 구현해준다.

AI는 TV 외의 가전제품에도 대거 적용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식재료를 인식해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갖춘 냉장고 등 AI 기능이 결합된 다양한 스마트 가전을 선보인다.

모빌리티도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는 차량용 '디지털 콕핏 2020'을 공개한다. 자동차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9' 칩셋을 탑재해 차량 내 8개 디스플레이와 8개 카메라를 구동하며 안전 운행과 인포테인먼트 경험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5G 기반 '차량용 통신 장비'(TCU)도 전

시한다. 주행 중에 고화질 콘텐츠와 HD 맵을 실시간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SK텔레콤도 통합 IVI(In-Vehicle Infotainment)와 HD맵 업데이트 기술을 적용한 '로드러너' 등을 공개한다. 차 안에서 모바일 내비 'T맵', 인공지능 '누구', 음원서비스 '플로', 인터넷 동영상(OTT) '웨이브', 주차용 'T맵주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로드러너는 운행 중 차선, 신호등,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감지해 기존 HD맵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이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쿠팡 '방학생활 테마관' 운영

쿠팡은 겨울방학과 신학기 준비를 앞둔 고객을 위해 '방학생활' 테마관을 운영한다. 방학숙제와 독서습관기르기, 계절스포츠, 신나는 문화활동 등 10가지 테마로 210만종의 상품을 준비했다. 참고서와 외국어 교재 등 학습서부터 방학을 맞아 떠나는 여행에 필요한 스키용품, 눈썰매장터켓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아이들의 창의력 교육 방법으로 인기가 많은 '스팀 완구'를 모은 테마관도 마련했다.

김명근 기자

U+알뜰모바일, 선불 충전 앱 출시

U+알뜰모바일은 선불 충전 앱을 출시했다. 오프라인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PC에 접속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에서 쉽고 간편하게 선불요금을 충전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바로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계좌번호를 한 번 등록하면 언제든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즉시 결제가 이뤄진다. 정기 자동결제 기능도 지원한다. 대리점이나 은행이 아닌 가까운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요금을 충전할 수도 있다.

김명근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아프리카 프리क्स, 'LoL 케이스파킵'서 창단 첫 우승 결승전 샌드박스에 3대0 완승

프로게임단 아프리카 프리क्स가 '리그 오브 레전드(LoL) 케이스파킵 올산'에서 창단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아프리카 프리क्स는 5일 울산광역시 남구 KBS올산홀에서 열린 결승에서 샌드박스 게이밍을 3대 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6년 팀을 창단한 이후 첫 우승이다. 아프리카 프리क्स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결승에서는 아프리카 프리क्स의 신

구조화가 빛났다. '스피릿' 이다윤과 '플라이' 송용준의 노련함과 '기인' 김기인의 뛰어난 개인기가 조화를 이루며 라인전과 정글 장악력, 오브젝트 싸움에서 모두 앞섰다. '미스틱' 진성준과 '젤리' 손호경 바텀 듀오 또한 안정적으로 경기를 뚫었다. 진성준은 3세트 후반에 쿼드라킬을 기록하며 상대의 추격을 지를 꺾었다.

결승 MVP는 매 세트 존재감을 과시한 김기인이 선정됐다. 김기인은 "프로 선수

가 된 이후 첫 우승을 하면서 MVP까지 수 상하게 되어 기분이 좋다"며 "안주하지 않고 2020시즌 더 열심히 해 롤드컵까지 노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개막한 케이스파킵 올산은 LoL 챔피언스 코리아 10개 팀, LoL 챌린저스 코리아 6개 팀, 대령명배 KeG 2개 팀, 챌린저스 코리아 예선통과 2개 팀 등 프로부터 아마추어까지 출전하는 국내 유일의 단기 토너먼트 대회다.

김명근기자



아프리카 프리क्स가 5일 '리그 오브 레전드(LoL) 케이스파킵 올산' 결승에서 샌드박스 게이밍을 꺾고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제공 | 한국e스포츠협회

목에 걸어 착용하는 의료기기 LOBAC M6 근육통증 완화 의료기기

목걸이용 LOBAC M6, 손목용 LOBAC LH, 허리용 LOBAC LP3

2020년 로바엠6 목걸이 신제품 출시기념으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한다.

최근 근육 통증을 완화시키는 '로바엠6 목걸이용'이 출시되었다. 이 목걸이용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품(FDA) 승인과 한국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표기 품목허가 제04-784호다.

알루미늄 판에 아노다이징 처리한 로바엠은 가벼운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로바엠6 목걸이용의 신상품

LOBACM1, M2 출시된 가운데 주식회사 나라컴퍼니 대표 펜던트에 4가지 색상상을 넣어 상품 디자인에 다양성을 더했다. "기존 로바엠6 목걸이용 펜던트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타원형이 아닌 원형으로 새롭게 만든 상품이다"면서

문의 070-4914-5205 (www.lobac.or.kr)

